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4
V. 종합의견	17

I. 일반개황

면적	882천 Km ²	G D P	2,424억 달러(2010년)
인구	29.04백만 명(2010년)	1인당 GDP	8,466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Bolivar(Bs)
대외정책	반미 좌파 동맹 추진	환율(달러당)	2.58(2010년 말)

-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95%, 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등 석유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06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집권3기를 시작하였으나,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악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노선 추구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등 인접국과도 외교마찰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니카라과, 쿠바 등 중남미 좌파 국가들과는 대규모 원조 공여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세를 지속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한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2004년에는 원유수출 정상화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힘입어 18.3%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05~07년에도 각각 8.2~10.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8%로 급격히 둔화되었고, 2009년에도 석유수출 감소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마이너스 성장률(-3.3%)을 기록하였음.
- 2010년 들어서도 외환통제와 가격통제 등 정부의 인위적 경제개입 확대와 투자자들의 신뢰하락으로 인한 투자부진,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1.4%)을 기록함. 이는 2009년 침체 이후 대부분 경기반등에 성공한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대비되는 성장률임.
- 2011년에는 고유가와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정통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한 투자부진 지속, 생필품에 대한 수입 증가, 전력난으로 인한 제조업 성장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인한 물가불안 지속

- 베네수엘라는 2003년 외자유출방지를 위한 외환통제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 가격통제 정책을 도입한 이래 두 자리수 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어 옴.
- 외환통제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진에 따라 국내 생필품 공급능력이 더욱 축소되었으며, 가격통제로 인해 국내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포기함에 따라 생필품 공급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물가가 더욱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수요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통화/ 재정 정책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불리바르화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을 통한 물가안정정책이 오히려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남미지역에서 가장 높은 28.2%를 기록하였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는 2011년 한 자리수대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장개입 정책과 선심성 정부지출이 지속 되는 한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8.2	4.8	-3.3	-1.4	2.8
재정수지/GDP	-2.9	-2.5	-8.0	-6.8	-5.3
소비자물가상승률	18.7	30.4	27.1	28.2	26.9

단위: %

자료: IMF, EIU.

□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추세

-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가재정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04년 이후 고유가 지속에 힘입은 재정수입 증대로 2004~05년 동안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인해 2006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2009년에는 국제원유가격 하락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8.0%로 크게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예산 감축과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적자폭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도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석유관련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베네수엘라는 OPEC회원국으로 2010년에 매장량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등극하였으며, 석유산업이 수출의 95%, 재정수입의 50%, GDP의 30%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석유가격 하락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며, 2009~201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또한, 대미 석유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등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임.

□ 인프라 미비

-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인프라의 미비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2010년 상반기에는 가뭄으로 인해 전력생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가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음.
- 정부 개입주의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프라 부족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나. 성장 잠재력

□ 경제구조개혁 부진으로 성장잠재력 낮아

- 석유 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경제구조의 다양화 정책, 공공부문 합리화 및 세수기반확대 등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석유산업 투자부진으로 석유생산량 감소 추세 지속

- 석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PDVSA의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가개발기금을 통해 사회보장지출과 인프라 사업에 쓰이도록 되어있어 탐사 및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이며, 주요 산업 국유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로 석유산업의 발전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기준 석유매장량은 세계 1위인 2,965억 배럴에 이르고 있으나, 투자부족으로 인해 석유생산량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석유생산량: 280만 b/d(2006년)→ 267만 b/d(2007년)→ 264만 b/d(2008년)
→ 247만 b/d(2009년)→ 237만 b/d(2010년)

다. 정책성과

□ 외환통제 지속, 이중환율제도는 폐지

-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국불안 및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외화도피가 확산되자, 2005년부터 '불법 외환통제법'을 제정하여 시장 내 외환거래를 금지하고 정부승인 없는 외환은 전면 불법화하기로 결정함.
- '불법 외환통제법'은 과거 2003년 2월에 발표된 외환통제법을 보완한 것으로 그 동안 법의 허점이 많아 불법 외환거래가 있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웠으며, 기소하더라도 재판관에 따라 형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미화 1만~2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외환관리거래소(Cadivi)를 통해 공식적으로 환전하지 않을 경우 2배의 벌금을 내야하며 2만 1달러 이상의 금액의 경우 2배의 벌금과 함께 2~6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음.
- 한편, 2010년 1월에는 공식 환율을 달러당 2.15볼리바르에서 4.3볼리바르로 평가절하 하였으나, 식품과 의약품 같은 생필품 수입시 달러당 2.6볼리바르를 적용하는 이중환율제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2010년 12월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품목에 관계없이 달러당 4.3볼리바르로 고정시킴.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외환통제로 인한 달러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달러당 8.8 ~ 9.6 볼리바르에 이르고 있음.

□ 가격통제 정책 강화

- 베네수엘라는 생필품 및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실시하여 시장왜곡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2011년 4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가격통제 정책 실시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 왜곡이 한층 더 심화될 것이며 관리감독권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시행되는 가격통제 정책은 중간재를 포함한 경제 전 분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급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유화정책 추진 가속화

-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 후 석유개발, 광산, 전력, 통신, 은행, 유통 등 거의 모든 전략적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을 무시한 강제적 국유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멕시코의 시멘트 기업인 세멕스(CEMEX), 캐나다 광산기업인 크리스탈렉스(Crystallex) 등 국유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로, 현재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이들 기업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임.
- 2011년 8월에는 금 불법 채굴을 방지하고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한다는 명목으로 금광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음. 이는 최근 미국 및 유럽 리스크로 금값이 급등함에 따라 금광업을 통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년대비 증가

- 석유수출이 총수출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산업 구조상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국제수지가 좌우되고 있음.
-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03년 이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의 약세전환으로 인한 수출급감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됨.
- 2010년에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폭은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의 상승 반전으로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44억 달러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음.

□ 투자환경 악화에 따른 대규모 자본수지 적자

- 정부의 지나친 개입 정책, 주요 기간 산업 국유화로 인해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자본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09년 49억 달러, 2010년에는 38억 달러의 자본 순유출을 기록하며 투자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전체 자본수지 적자규모는 2010년 188억 달러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초과하였음.

□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2004년 이후 외환통제와 석유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차베스 정부가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을 국가발전기금(FONDEN)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300억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해왔음.

- 그러나 경기침체와 석유수출 감소로 인해 2009년 국영석유공사인 PDVSA의 국가발전기금 기여금이 축소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국가발전기금으로 이전시킴으로 인해 최근 외환보유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300억 달러를 기록한 외환보유액은 2011년 8월 현재 29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에만 35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국가발전기금으로 이전되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18,063	37,392	8,561	14,378	25,394
경 상 수 지 / GDP	8.0	12.0	2.6	5.9	8.2
상 품 수 지	22,979	45,656	19,153	27,173	40,229
수 출	69,010	95,138	57,595	65,786	89,753
수 입	46,031	49,482	38,442	38,613	49,524
외 환 보 유 액	33,477	42,299	35,000	29,621	30,933
총 외 채 잔 액	45,850	50,179	54,503	61,421	73,303
총 외 채 잔 액 / GDP	20.2	16.1	16.7	26.4	24.1
D. S. R.	7.1	5.7	6.4	14.9	15.8

자료: IFS, EIU.

□ 총외채잔액 및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 2005년 450억 달러 규모였던 베네수엘라의 총외채잔액은 정부지출 증가와 중남미 좌파정권에 대한 해외원조 등으로 인해 2010년에는 GDP 대비 26.4%인 6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중국이 베네수엘라 최대채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2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계약이 승인되었음.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2009년 6.4%에서 2010년에는 14.9%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도 1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9년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라 석유 수출이 급감하면서 필요한 정부지출 금액이 부족해지자, 외채발행을 통해 충당하였음. D.S.R 증가는 발행된 외채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원리금상환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심화와 정국불안 요인 상존

- 1998년 12월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2월 취임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헌법 제정 등 정치체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함.
- 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야당분열에 따른 정치적 견제세력의 부재 등으로 차베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독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 과정에서 2002년 4월9일 시작된 노조총파업이 유혈시위로 발전하면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 차베스 대통령이 일시 축출되었으나 이틀 만에 재차 대통령으로 복귀하였음.

- 그러나 차베스의 권좌복귀 후에도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극한대립 구도가 지속되었고, 12월에는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4번째 총파업이 발생함에 따라 석유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정국불안이 지속되었음.

□ 2006년 대선에서 차베스 대통령 재집권 성공

- 한편, 2006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62%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어 2007년 1월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집권 3기를 시작하였음.
- 취임식을 앞두고 차베스 대통령은 신임 내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향후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 시킬것을 선언하였으며,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주요 통신, 전력 기업의 국유화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07년 1월 베네수엘라 의회는 차베스 대통령에게 향후 18개월간 대통령 포고령만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차베스 대통령은 독자적인 법률제정권을 갖게 되었음.
-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12월 장기집권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음. 그러나 2009년 2월 동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재실시하여 54.85%의 찬성으로 연임제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며 종신 집권이 가능해짐.

□ 2010년 9월 총선에서 여당 의석수 60% 확보 실패

- 2010년 9월 치뤄진 총선에서 여당인 연합사회당(PSUV)이 총165석 중 94석을 확보하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중요 의사결정의 정족수인 60%(99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하였음. 반면 야권 연합세력인 민주연합동맹(MUD)는 65석을 차지하며,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차베스 대통령 일인에게로의 권력집중 심화와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최근 경제난으로 차베스에 대한 지지율도 40% 대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불안이 지속될 전망

- 최근 차베스 대통령이 항암치료를 위해 쿠마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차베스는 최근 일각에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되자 공식석상에 등장해 반드시 완쾌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힘.
- 한편, 야권인 민주연합동맹은 내년 2월 후보자 배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경선에서 승리한 인물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로 합의하였음. 차베스의 건강악화와 최근의 지지율 하락, 야권 세력의 단합으로 인해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국불안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중산층 부재로 사회불안 지속

- 중산층이 거의 없고 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빈곤층과의 빈부 격차가 커 사회범죄율이 높으며, 치안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임.
- 베네수엘라 폭력관측소(OVW)에 따르면 1999년 국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4천 550건으로 2010년에는 이보다 4배가 넘는 1만 9천 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60건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멕시코(15건)나 반군 소탕이 전개 중인 콜롬비아(38건)보다도 높은 수준임.

□ 범죄율 증가로 교도소 수용범위 한계 도달

- 베네수엘라의 높은 범죄율로 인해 교도소 수감인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시설이 부족하여 추가로 수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새로 부임한 교도부 장관인 Iris Varela는 문제해결을 위해 2만 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당분간 추가로 수감자를 받지 말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
- 한편, 교도소 내 보안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금년 6월에는 무기를 소지한 1,000여명의 수감자들과 군인들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 차베스 반대파와 지지파간의 대립으로 사회불안

- 차베스 반대파와 지지파간의 대립의 골이 깊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급진적 개혁정책을 둘러싼 기득권층과 빈민층간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현재까지 무혈충돌이나 대규모 소요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 관계 악화 지속

-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1999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차베스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주장하며 쿠바, 리비아, 이라크 방문 등 미국을 자극하는 외교활동을 계속해왔음. 미국이 2002년 쿠데타를 배후조정했다는 명목으로 미국대사를 추방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사 맞추방, 베네수엘라의 미마약범죄 단속협력 거부, 베네수엘라의 대미 원유공급 중단위협 등 양국 간 관계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오바마 정부출범 이후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양국 간 관계개선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콜롬비아 등 인접국과 잦은 긴장관계 형성

- 콜롬비아 좌익 반군지원 의혹, 멕시코의 셰멕스 국유화, 차베스 정부의 페루내 좌파세력 지원 의혹 등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인접국과 잦은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양국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임.
- 특히, 콜롬비아 미국기지 건설 문제와 베네수엘라의 콜롬비아 반군 활동을 지원 의혹 등으로 인해 콜롬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0년 7월에는 콜롬비아와의 단교를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

□ 중국, 러시아 등과 관계 다변화 모색

- 최근 중남미 지역 내에서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따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가와의 관계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이는 베네수엘라의 대미 석유수출이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석유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됨.

- 한편,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에 중국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는 등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위기 경험국이나,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

- 동국은 1983~84년 그리고 1988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90년 12월 브래디플랜(Brady Plan)에 의거 총 외채 380억 달러 중 196억 달러(원금탕감20억달러)에 이르는 대외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이후 베네수엘라의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외환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채원리금은 정상 상황

- 외환통제에도 불구하고 외채원리금은 정상상환하고 있으며, 수출 및 외환보유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동국의 외채 및 원리금 상환부담은 아직까지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외채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상존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평가 등급

- OECD는 2008년까지 6등급을 유지하다가 2009년 정부의 지나친 개입 주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등을 이유로 최하 등급인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한 후 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5>

한·베네수엘라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728,387	353,387	643,537	자동차, 화산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 입	23,906	30,568	124,549	합금철선철및고철, 석유제품, 알루미늄
합 계	752,293	383,955	768,086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는 1979년 대 베네수엘라 교역이 개시된 이후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009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교역 규모가 급감하였으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69백만 달러(수출 644백만 달러, 수입 31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선박, 가전기기 등이며, 수입은 베네수엘라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 알루미늄, 기타금속광물 등 1차 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 베네수엘라 직접투자 규모는 총 10건, 67백만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1차 금속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V. 종합 의견

-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외환통제와 가격통제 등 인위적 시장개입정책과 무차별적인 국유화정책 실시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음.
- 차베스 대통령 일인에게로의 권력집중 심화와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통한 영구집권 추진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으며, 인접국은 물론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잦은 마찰로 국제관계도 불안정한 상황임. 또한, 높은 실업률과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최근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악화설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차베스 지지파와 반대파간 뿌리 깊은 반목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문의 : 조사역 최철영(☎3779-5720)

E-mail : cychoi@koreaexim.go.kr